

뜻깊은 현지시찰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 년대가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을 찾으시였던 가슴뜨거운 그 화폭을.

걱정에 넘쳐 눈물을 흘리는 부대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군부대장병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새해를 맞는 이 부대 군인들에게 힘을 주려고 찾아왔다고, 모두 힘을 내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걱정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때 그 누가 알았던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어찌하여 이곳 부대를 찾으시였는지 그 깊은 뜻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력사의 이날 일군들에게 피눈물속에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에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을 방문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기어이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내외에 보여준것이라는데 대하여 절절한 심정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바로 그래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진행하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 이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온 세상에 파시한 뜻깊은 현지시찰이었다.